



“한방에 갈라”... 여야, 막판 돌발 악재 ‘비상’

6·3지선·재보선 D-8
오세훈 'GTX 철근 누락'에 이어 민주당 김용남 차명 대부업 의혹 평택乙 정쟁 후보 "사퇴" 총공세 하정우 주식 파킹 논란도 시끌 유정복 코인 누락 고발전 비화

6·3지방선거를 불과 8일 앞두고 선거 판세를 뒤엎을 돌발 악재가 연이어 터져 나오면서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GTX-A 철근 누락' 논란부터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보선 후보의 '차명 대부업 운영' 논란까지 연일 터져 나오는 악재에 각 당은 비상이 걸린 상태다.

특히 이 같은 돌발 악재가 부동층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는 적극 방어에 나서면서도, 상대 후보 의혹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데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이 가장 주목하는 지역은 경기 평택을 재선거다. 민주당 김용남 후보가 자신이 보유한 농업회사법인을 통해 동생의 대부 업체를 차명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쟁자인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는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사람이 서민의 고향을 빼는 고리 대부업의 손을 댔다는 것도 놀랍지만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차명으로 운영했다니 정말 경악할 일”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만약 김용남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또다시 당선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당선된 국회의원이 지역 현안에 집중하지 못하고 본인의 사법 리스크 방어에 시간을 허비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평택 시민의 몫이 된다”며 김 후보의 사퇴를 주장했다.

유 후보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서민에게는 고금리 대출의 고통을 말하면서 뉴이재명의 아이낀 김 후보의 타인 명의 고금리 대부업 의혹에는 눈감을 수 있나”라며 “가난한 사람에게 이자가 높아선 안 된다고 말하면서 정작 민주당 후보가 연 24% 범정 최고 수준의 금리로 돈을 벌었다는 의혹 앞에서는 침묵할 수 있는 것인가. 민주당도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도 김 후보의 '차명 대부업 운영' 의혹과 관련해 “(격전지인) 서울과 영남 지역 선거에 매우 악영향을 주고 있다”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조 후보는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특히 민주개혁 진영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분들의 지지자들, 당원들의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선거 공보물 꼭 확인하세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열을 앞둔 24일 서울 시내 한 아파트에서 주민이 우편 수취함에 배달된 투표 안내문과 선거 공보물을 살펴보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의 사전 투표는 29일과 30일 이틀간 실시되며, 본투표는 6월 3일 지정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이종원 기자

말했다.

특히 민주당이 전일 조국혁신당의 윤리감찰 촉구에 대해 ‘금도를 지켜달라’고 한 데 대해 “지금 문제가 단순히 ‘민주당 인재 나카 아무도 신경 쓰지 마.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답하는 것이 문제 해결인가”라며 “저는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용남 후보 측은 25일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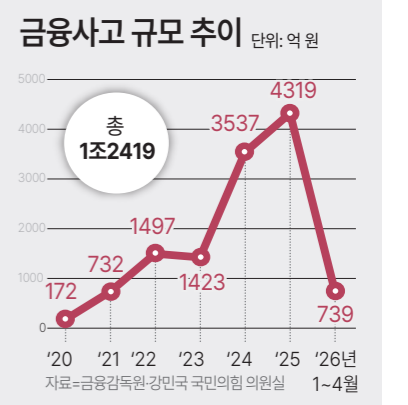
의혹에 대해 “정상 등록된 법인의 자본 보유 사실을 의도적으로 ‘차명 사채업’ 등으로 왜곡하며 자극적인 표현을 반복하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과장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정치 공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초점전 지역인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경우 하정우 민주당 후보의 업

스테이지 주식 논란과 이해충돌 의혹이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하 후보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수탁기관에 해당 주식을 전량 백지신탁했고, 이해충돌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관련 직무 관여 사실 및 내역을 인사혁신처에 투명하게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 2면에 계속

김진강 기자 kjk2156@skypedaily.com

줄 잇는 금융사고 작년에만 4319억



지난해 국내 금융업권 금융사고 금액이 4319억 원으로 2020년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허위서류를 활용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한 대출사기 적발 규모가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반면 은행권 횡령·유용과 업무상배임 적발금액은 전년보다 줄었다.

25일 국회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 금융업권 금융사고는 총 609건, 발생금액은 1조 2419억 원 규모다. 연간 사고금액은 2024년 3537억 원에서 2025년 4319억 원으로 늘었고, 올해도 4월까지 739억 원이 발생했다.

2020년 이후 최대 규모 기록 은행 대출사기 적발 증가

업권별로는 은행이 7698억 원으로 전체의 62.0% 규모다. 이어 증권 2623억 원, 카드 1081억 원, 저축은행 812억 원, 손해보험 113억 원, 생명보험 93억 원 순이었다. 증가세 원인은 은행권에서 폭증한 금융사기 적발 규모다. 금융사기는 2024년 409억 원에서 2025년 2419억 원으로 급증했다. 동기간 횡령·유용 적발금액은 2024년 141억 원에서 2025년 110억 원으로 줄었고, 업무상배임도 1279억 원에서 528억 원으로 감소했다. 금감원은 강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에서 “급증한 금융사기는 담보가치를 부풀리거나 소득증빙 위변조, 허위 임대차계약 등의 허위서류를 이용한 사고”라며 “특히 동일인이 다수 은행을 상대로 한 대출사기가 동시에 적발돼 규모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선주 기자 sjlee@skypedaily.com

스벅 논란 불끄기... 정용진 회장 직접 등판

오늘 진상조사 결과 직접 발표 브랜드 신뢰 회복 가를 분수령

정용진(사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과 관련해 공식 사과와 진상조사 결과 발표에 직접 나서며 사태 수습에 나선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정 회장은 26일 오전 서울 여상동 조선호텔 서울 강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타벅스 코리아의 부적절한 마케팅으로 상처받은 이들에게 사과할 예정이다. 신세계그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그룹 차원에서 진행한 진상조사 결과도 함께 설명할 계획이다.

이번 논란은 스타벅스 코리아가 18일 텀블러 프로모션 과정에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문구가 5·18 민주화운동과 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온라인을 중심으로 논란이 확산했다.

신세계그룹은 논란 직후 대응에 나섰다. 정 회장은 18일 손정현 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와 관련 임원을 해임했다. 이어 19 일에는 회장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변명

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라며 재발 방지와 내부 검수 체계 점검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이후에도 논란은 이어졌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문제 제기가 잇따랐고,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불매 움직임과 구매 인증 움직임이 동시에 나타났다. 사안이 단순 마케팅 논란을 넘어 사회적 이슈로 확대되면서 신세계그룹 차원의 추가 설명 필요성도 커졌다.

경찰 수사에 진행되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시민단체 고발에 따라 정 회장과 손 전 대표를 모두 5·18 민주



환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향후 해당 프로모션의 기획·승인 과정과 내부 검수 절차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접점에서 변화가 감지됐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교환권 부문에서 2019년 이후 7년간 1위를 유지해 온 스타벅스 상품권은 최근 전체 인기 순위 5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25일 오전 기준 상위권에는 배달의민족 교환권, 이마트 전용 신세계 상

품권, 메가MGC커피 상품권, 올리브영 기프트카드 등이 이름을 올렸다.

다만 이 같은 순위 변화가 이번 논란의 직접적인 영향인지, 다른 상품권 수요 변화에 따른 일시적 현상인지는 추가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럼에도 장기간 선물하기 시장 상위권을 지켜 온 스타벅스 상품권의 순위 변화는 브랜드 선호도와 소비심리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스타벅스는 신세계그룹의 주요 소비자 접점 브랜드인 만큼 논란이 길어질 경우 그룹 이미지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이번 회견에서는 조사 결과와 함께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재발 방지책을 제시하는지가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윤 기자 nykim@skypedaily.com

“부(富)와 명성의 계보를 잇는 연결, 더 이상 그들만의 리그가 아닙니다”

부의 지도

성공한 이들의 곁에는 항상 그들을 이끌어준 스승이 있었습니다.
'부의 지도 명사 팬클럽'에서 당신만의 멘토를 만나고 그들의 성공 철학을 직접 흡수하십시오

단순한 팬덤을 넘어 성공의 파트너가 되는 길,
지금 신청하시면 원하시는 명사와의 특별한 만남이 시작됩니다